

선행 여가행동과 관련된 제약연구의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Constraints Studies in Leisure Literature

이인재** · 이훈***

Lee, In-Jae · Lee, Hoon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literature on leisure constraints. Based on the reviews on the leisure constraints, four major issues were developed: 1) constraints on what participation or experience 2) negotiation revisited, 3) leisure constraints, facilitation, and their integrations, 4) leisure constraint mode extended. From the theoretical point of view,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leisure behavior by integrating the several studies into one research framework. Empirically authors provide useful information of constraint on leisure behavior and of how to relieve the constrains in order to allocate limited resources effectively and equally.

핵심용어 : 여가제약, 제약협상, 위계적 제약모형, 축진이론

K C I

* 이 논문은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42-B00231)

**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대학 관광학과 조교수. 연구 관심분야는 심리학에 바탕을 둔 관광자 행동이다. E-mail: ij14572@cu.ac.kr

*** 논문의 교신저자임.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관광학과 교수. 연구 관심분야는 여가이론, 이벤트관광 및 생태관광이다. E-mail: hoon2@hanyang.ac.kr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전통적으로 여가활동의 부족은 여가시간 및 시설의 부족 등과 같은 여가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에 기인한다고 여겨져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5일 근무제의 실시와 관련한 여가활동의 변화에 대한 예측은 여가활동의 증가 및 숙박관광의 증가 등과 같은 낙관적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여가활동이 시간 이외의 여러 가지 변수와 관련되어 있고, 시간의 제약과 여가활동 사이의 낮은 상관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Kay & Jackson, 1991)를 고려해 볼 때 여가활동과 제약의 완화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즉, 한정된 자원 속에서 여가시간의 증가라는 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가활동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요구된다.

외국의 경우 여가제약은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지난 40여 년 동안 꾸준한 관심을 받아 왔는데,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Goodale & Witt, 1989: 422; Jackson & Scott, 1999: 301-307). 첫째, 여가활동 비참여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학적이고 사회 복지적 접근의 단계 둘째, 여가 참여 및 비참여에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원인 규명의 단계(예를 들면 ORRRC 연구) 셋째, 여가활동참여에 장애가 되는 사회심리학적 변인의 규명의 단계 넷째, 여가활동 참여 및 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에 바탕을 둔 통합적 모형 개발의 단계이다.

이러한 지속적 관심 속에서 여가제약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사회심리학이 여가제약에 적용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이다. Journal of Leisure Research 와 Leisure Science를 중심으로 여가제약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이루어 졌는데, 여가제약의 유형화 및 위계적 모형의 개발, 여가제약의 극복 과정(negotiation process)의 이해, 그리고 가족단위(family leisure)의 여가제약 등이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어 왔다.

이러한 외국의 눈부신 발전과 달리 국내 관광학 분야의 경우 몇몇의 학자(예, 이훈·송영민, 2005; 이훈 외, 2004; 정란수 외, 2005)에 의해서 위계적 이론이 도입되어 실증연구에 사용되어 왔지만 이론자체에 대한 체계적 접근 보다는 이

론을 적용하는데 치중하였다. 특히,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아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특정 세분집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관광학 분야에서는 이런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국내·외 여가 및 관광학 분야의 여가제약 관련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주요 논점에 대한 정리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함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Journal of Leisure Research*와 *Leisure Science*에 실린 17편의 주요논문과 그리고 국내 관광 관련 논문집에 실린 여가 및 여가제약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연구 주제에 따라 다른 분야의 주요 연구들도 검토하여 여가제약과 관련된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만 선행 내용연구가 다소 정량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면, 본 연구는 정성적인 접근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연구문제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II. 선행연구의 고찰과 주요 쟁점분석

1. 위계적 제약모형의 검증

전통적으로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들은 정량적 방법에 의존하여 이미 형성된 특정 활동에 대한 여가선호가 실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실증적 연구들은 시간의 부족, 비용의 부족, 시설의 부족, 동반자의 부재 등을 여가활동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의 연구에서 제약은 "특정한 활동에 참여를 막는 이유들의 묶음"으로 정의되어 왔다(Jackson, 1988: 210).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의 제약요인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특히, 초기연구는 제약이 특정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였다. 그러나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여가제약이 선호를 바탕으로 한 참여 단계에서 뿐 만 아니라, 특정 여가에 대한 선호가 형성되는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참여에 미치는 제약과 선호에 미치는 제약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Crawford & Godbey, 1987; Henderson *et al.*, 1987; Jackson, 1990; Jackson & Searle, 1985). 예를 들어, Henderson *et al.* (1987)은 레저활동

에 대한 선호와 참여 사이에 존재하는 개입 요소로서의 전통적 의미의 장애 (barrier)를 여가활동 기회와 관련되면서 구조적 요인에 해당하는 개입적 제약 (intervening constraints)과 여가활동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고 인간 내부 및 상호적 요인에 해당하는 선형적 제약(antecedent constraints)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Crawford & Godbey(1987)는 여가제약을 내재적 제약 (intrapersonal constraints), 대인적 제약(interpersonal constraints)과 구조적 제약(structural constraints)으로 구분하였다. Crawford & Godbey(1987)에 따르면 내재적 제약은 레저활동의 선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스트레스, 우울함, 분노, 종교, 특정 여가활동에 대한 이전의 사회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 및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의 심리적 요인을 포함하고, 대인적 제약은 인간의 상호작용 및 개인간의 관계와 관련된 요인으로서 (예를 들어, 파트너의 부재)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형성과정 및 여가활동참여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제약(structural constraints)은 이미 형성된 선호가 실제적인 참여에 이르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경제적 자원, 시간과 기회의 활용성, 가족생애주기 등 전통적 의미에서의 장애(barrier)를 포함한다.

그 후 Crawford *et al.* (1991)은 이전의 제약요인의 유형화가 가지는 단절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 개의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모형을 하나의 틀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순차적(sequential)이고 위계적(hierarchical)인 통합모형을 개발하였다. Crawford *et al.* (1991)에 따르면, 여가활동 참여는 제약요인들과의 동태적 협상과정이며, 제약요인은 여가활동 참여 후에도 참여의 빈도, 참여자의 레저활동 전문화 수준 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제약요인 발생순서는 그 중요성의 정도와 일치하여, 선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내부적 요인(즉 내재적 제약요인)이 세 가지 요인 중 가장 중요하며, 이들 세 요인은 단계적으로 연결되어있어서 앞 단계가 극복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고 주장하였다.

Crawford *et al.* (1991)의 위계적 모형은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실증적 검증이 시도되었다.

〈표 1〉 여가제약의 유형 및 위계에 관한 주요 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유형화	Crawford 와 Godbey(1987)	여가제약을 내재적(intrapersonal), 대인적(interpersonal) 그리고 구조적(structural) 제약요인으로 구분함
	Henderson, Stalnaker, 와 Taylor(1987)	여가제약을 개입요인(intervening constraints) 과 선형적 요인(antecedent constraints)으로 구분
위계화 및 검증	Crawford, Jackson, 와 Godbey(1991)	Crawford & Godbey(1987)의 연구를 바탕으로 여가제약의 위계적 모형을 형성함.
	Raymore, Godbey, Crawford, 와 von Eye (1993)	Crawford 등 (1991)의 여가 제약모형을 메타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함.
	Hawkins, Peng, Hsieh, 와 Eklund(1999)	Crawford 등 (1991)의 여가 제약모형을 메타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나 검증에 실패함.
위계 모형 수정	김유일·강석희(2000)	Crawford 등 (1991)의 연구를 바탕으로 여가제약의 위계성을 검증함.
	Raymore(2002)	Gibson(1989)의 생태모형을 이용하여 Crawford 등 (1991)의 모형을 수정함. 여가제약을 환경적 조건으로 봄.
	정란수·이훈·이인재 (2005)	사회구조와 행위의 변증법적 접근을 통해 여가제약모형을 수정함.

우선 Raymore *et al.* (1993)은 심리적 위계성에 근거하여 내재적 제약에서 구조적 제약으로 진행될수록 제약을 경험하는 응답자의 숫자는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검증하여 위계성을 확인하였다. 김유일·강석희(2000)도 Raymore *et al.* (1993)이 사용한 메타모형 (metamodel) 방법을 적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Hawkins *et al.* (1999)은 Raymore *et al.* (1993)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지만 위계성을 입증하는 데는 실패하여 제약 위계성 이론의 타당성에 이론의 여지를 남겼다.

결론적으로 Crawford, Godbey, 그리고 Jackson 등의 노력과 이들에 바탕을 둔 일련의 연구들은 제약의 연구를 '선호된 여가활동이 왜 수행되지 못하는가?'라는 문제로부터, '제약이 여가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나아가 인간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여가형성에 미치는 영향'(Jackson *et al.*, 1993)에 대한 문제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다양한 외국의 학문적 동향에 반해 국내 제약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국내의 몇몇 학자들의 노력으로 여가제약

에 대한 이해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부족함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대다수 연구의 경우 서구의 초기의 제약연구와 같이 구조적 제약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은 반면, 대인적, 내재적 제약요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2. 위계적 제약모형에서 제약 및 제약의 극복

제약유형의 확인 및 이들의 위계성의 발견과 더불어 선행 제약연구의 연구 공헌 중 하나는 여가활동에 있어 여가제약의 존재가 반드시 여가 활동에 불참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즉 초기의 제약연구자들이 “장애”(barrier)를 너무 커서 극복하지 못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여 장애의 존재를 여가의 미참여와 동일시하던 경향과 달리, 연구자들은 “제약”(constraints)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오던 “장애”와 구별함과 동시에 장애를 협상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연구자들(예를 들면, Henderson *et al.*, 1993; Jackson *et al.*, 1993; Jackson & Rucks, 1995; Samdal & Jekubovich, 1993; Scott, 1991)에 따르면, 사람들은 제약요인이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여가활동을 수정하거나 일상생활을 조정함으로써 여가활동을 계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제약의 존재와 참여의 관계가 반드시 부정적인 관계가 아님을 나타내는 일련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되었다(Kay & Jackson, 1991; Shaw *et al.*, 1991). Kay & Jackson(1991)의 연구에 의하면 여가제약에 대한 인식은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뿐 만 아니라 여가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 Shaw *et al.*(1991)도 2차 자료분석을 통하여 제약요인이 반드시 여가활동의 참여와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Alexandris & Carroll(1997)은 과거의 연구가 제약을 측정함에 있어 속성단위의 연구를 수행하여 왔는데 이들이 가지는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Crwaford & Godbey(1987)이 구분한 세 개의 제약유형(요인)을 사용하여 여가참여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재적인 제약의 경우 여가활동의 참여와 매우 유의한 부정적 관계를 가지는 반면 대인적 및 구조적 제약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약의 유형에 따라 여가활동의 참여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여가제약과 관련 협상에 관한 주요 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제약 과 활동	Kay와 Jackson(1991)	여가제약과 활동이 반드시 부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냄 .
	Show, Bonen, 와McCabe (1991)	여가제약과 활동이 반드시 부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냄
	Scott(1991)	제약요인과 아울러 제약을 극복하는 전략을 유형화함 .
협상 이론	Jackson Crawford, 와 Godbeyl(1993)	균형이론을 바탕으로 협상이론을 제시
	Samdal 과 Jekubovich(1993)	제약요인을 4가지로 유형화 하고 유형별로 제약의 극복전략을 밝힘.
	Henderson, Bedini, Hecht, 와 Shuler(1993)	장애를 가진 집단을 제약의 극복전략에 따라 5가지 집단으로 유형화 함.
	Jackson 과 Rucks(1995)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제약의 극복에 대한 연구를 수행

이런 결과에 비춰 볼 때 Crawford *et al.* (1991)의 "여가활동 참여는 제약의 존재 여부보다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재배열하거나 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협상 (negotiation) 결과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다"(p. 314)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이와 유사하게 Jackson *et al.* (1993)도 참여는 제약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협상을 통한 제약의 극복 결과라고 진술하면서, 이러한 협상과정은 여가 제약의 존재시 여가활동 참여를 중단시키기보다는 여가활동을 수정하게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협상과정에 대한 주장은 많은 실증적 연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증명되었다. 앞서 언급한 Kay & Jackson(1991)의 경우 "여가활동에 있어 금전적, 시간적 제약에 직면하면 어떻게 극복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금전적 제약의 경우 여가의 참여의 횟수를 줄이거나(60%), 여가활동을 위한 저축(11%), 저렴한 기회의 모색(8%)등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반면 여가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는 11%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Scott(1991)도 브릿지놀이에 참여하는 개인과 집단의 제약을 분석하여 대략 열 가지 정도의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제약을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가시간의 조정 및 여가와 관련된 기술의 습득 등의 방법을 통해 극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Samdahl & Jekubovich(1993)는 여가활동에서 직면

하는 4가지 제약유형(시간, 돈,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을 조정하거나, 자기의 시간을 파트너의 시간과 맞게 조정하고, 금전적 제약에 직면한 여가활동의 수정 등 행위적 노력과 함께 제약요인에 대한 시각의 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Henderson *et al.* (1993)은 장애(disability)를 가진 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약을 극복하는 전략의 유형에 연구 중심을 두어 제약에 대응하는 유형에 따라 소극적 반응자, 적극적 성취자, 수정자, 변환자, 대리만족 등 5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중 제약에 직면하여 여가활동을 중단하는 소극적 반응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집단들은 제약요인과 상관없이 동일한 여가를 수행(적극적 성취자)하거나, 희망하는 여가를 수정된 형태로 수행(수정자), 여가형태의 변화(변환자) 및 다른 사람의 여가활동을 보면서 만족(대리만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가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Jackson & Rucks(1995)는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을 병용하면서 개인들이 제약을 극복하는 전략을 유형화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협상전략은 인지적인 전략과 행동적인 전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지적인 전략의 경우 태도의 변화를 통한 인지부조화의 감소하려는 노력을 포함하고, 행동적인 전략의 경우 시간의 변경, 기술의 습득과 더불어 인간관계의 변화와 여가에 대한 열망의 변경 등 가시적인 행위의 변화를 포함시켰다. 나아가 이들은 협상전략은 제약의 형태와 관계가 있다는 것도 밝혀내었다.

3. 협상과정에서 동기의 역할

협상과정을 주장하는 일단의 연구자들이 제약과 참여의 관계가 반드시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협상과정을 유형화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면, 다른 한편의 연구자(Alexandris *et al.*, 2002; Carroll & Alexandris, 1997; Hubbard & Mannell, 2001)들은 협상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변수로서 동기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다. 후자의 경우 Jackson *et al.*(1993)이 협상과정을 소개하면서 언급한 “균형에 관한 정리(balance proposition)를 바탕으로 여가참여에 있어 여가활동에 대한 동기의 역할을 연구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표 3〉 여가제약의 극복에 있어 동기에 역할에 관한 주요 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Jackson, Crawford, 와 Godbey(1993)	균형이론을 바탕으로 협상이론을 제시하면서 동기의 역할강조
Carroll과 Alexandris(1997)	상관분석을 이용 동기와 제약과의 부적관계를 증명함 .하지만 두 변수의 인과관계의 규명은 하지 않음.
Hubbard 와 Mannell(2001)	Carroll과 Alexandris(1997)의 상관연구가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4가지 인과모형을 형성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함.
Alexandris, Tsorbatzoudis, 와 Grouisos(2002)	자기결정이론을 바탕으로 동기를 3가지로 유형화하고 제약, 동기 참여의 인과관계를 검증함. 제약을 동기의 선행변수로 봄
김성희·이철원(2003)	Alexandris 등(2002)과 달리 동기를 제약의 선행변수로 보고 동기와 제약의 인과관계를 분석함.

균형에 관한 정리에 따르면, “협상과정의 시작과 결과물은 참여에 따른 제약요인과 동기의 상호작용 및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결정 된다”(p. 9)고 한다.

우선 Carroll & Alexandris(1997)는 단순 상관분석을 통하여 동기는 여가활동에 대한 제약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여가활동의 참여와는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은 여가활동에 동기부여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제약을 덜 느낄 뿐만 아니라 쉽게 극복하여 여가활동에 더 많은 참여를 한다는 해석과 아울러, 제약을 많이 느낀 사람이 동기부여가 적다라는 두 개의 대안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두 개의 대안적 해석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단순 상관분석을 통한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제약과 동기의 선·후행 관계를 밝히는 데는 실패하였다.

Hubbard & Mannell(2001)은 앞선 Carroll & Alexandris(1997)의 연구가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동기, 제약, 협상 및 여가활동참여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4가지 인과모형(independence model, negotiation buffer model, constraints effects mitigation model, perceived constraints reduction model)을 제시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모형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른 모형보다 제약효과완화(constraints effects mitigation)모형이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 따르면 여가활동의 참여에는 제약(부정적인 영향)과 협상(긍정적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예상과 달리 동기는 협상을 통한 간접적(긍정적)영향만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긍정적인 영향이 제약의 부정적인 영향보다 커 제약요인이 참여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Hubbard & Mannell(2001)의 연구는 동기를 측정함에 있어 2개의 설문문항(건강과 즐거움에 대한 동기)만을 사용함으로써 동기의 하부요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고, 아울러 제약의 경우 하위제약요인의 위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형에 사용함으로써 협상과정의 이해에 필요한 인과모형의 구성에는 성공하였으나 위계성을 갖는 제약의 하부유형에 대한 동기의 역할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Alexandris *et al.* (2002)은 Hubbard & Mannell(2001)이 가지는 동기측정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nt theory)에 바탕을 두고 동기를 무동기(amotivation), 외재적동기(extrinsic motivation), 및 내재적동기(intrinsic motivation)으로 유형화한 후, 7가지 제약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각각의 동기를 종속변수로 하는 일련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의 형성에는 제약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무동기(amotivation)의 경우 7개의 제약요인 중 4개의 제약(지식의 부족, 흥미의 부족, 심리적 제약, 시간의 부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는 심리적 제약 및 흥미의 부족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기와 참여의 관계는 무동기가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김성희·이철원(2003)이 도시근로자의 여가동기에 따른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에서 동기가 여가제약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Alexandris *et al.* (2002)의 연구와는 반대로 동기를 독립변수로 하여 동기가 제약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성희·이철원(2003)은 여가제약 척도의 용어를 시간적 제약을 내재적 제약으로, 구조적 제약을 경제적 제약으로, 그리고 대인적 제약을 주변 의식적 제약으로 수정하고 여가동기를 5개(휴식적 동기, 신체적 활동동기, 사회적 동기, 지적 동기, 및 유능감 인지동기)로 유형화 하여, 5개 동기를 독립변수로 하고 시간적 제약, 경제적 제약, 주변의식제약을 종속변수로 하는 3개의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식적 동기 및 유능감인지 동기가 시간적 제약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제약의 경우 휴식적 동기와 지적 동기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주변의식적 제약은 휴식적 동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내었다.

결론적으로 협상과정과 동기에 대한 일련의 연구결과는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협상과정을 갖기 때문에 제약이 반드시 비참여로 이어지지 않고 동기와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조정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각각의 연구별 제약에서의 문제점과 더불어 제약연구와 관련한 동기연구는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동기와 제약의 선행관계의 규명 등 몇몇의 해결해야할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III. 여가제약연구에 주요 쟁점 및 제언

1. 여가참여의 제약 vs 여가경험의 제약

최근 Samdahl & Jekubovich(1997)은 Jackson과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여가제약모형(Crawford *et al.*, 1991)에 대한 비판에서 제약의 대상을 선호하는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즉, 비참여)에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여가 제약모형이 여가활동의 전부를 이해하기 위해 고안되지 않았다는 Jackson(1997)의 반론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여가제약의 대상을 선호하는 여가활동의 참여에 국한하여 온 점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전통적으로 여가는 시간적 정의, 활동적 정의, 및 상태적 정의 등 학문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고, 현대의 여가학자들은 주로 지각된 자유와 자기결정성에 바탕을 둔 주관적인 상태라는 데에 동의한다(Harper, 1981). 이러한 정의의 다양성과 더불어, 최근의 여가연구 역시 여가시간 및 활동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여가를 보다 여가롭게 만드는 상태 즉 최적의 여가경험에 대한 연구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여가연구의 연구동향에도 불구하고 여가제약의 연구는 여가는 주로 참여에 대한 제약에 관심을 보여 온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여가참여가 일차적인 문제라면 참여 속에 최적의 경험을 하는 것이 여가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궁극적으로 여가연구의 목적이 여가경험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볼 때 여가연구는 단순한 활동의 참여나 단순한 자유시간이 아닌 경험의 질과 관련된 제약의 연구가 이루어 져야한다.

2. 협상연구의 재검토

여가계약에서 협상에 대한 연구는 여가계약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되어 왔다. 협상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상전략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와 협상과 동기 및 계약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가협상전략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는 여가의 제약 및 이의 극복의 이해와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다양한 연구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협상유형을 일반화하여 사회과학적 학문으로서 가지는 예측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전략유형이 선택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특정의 사람이 왜 특정의 여가협상과정을 취하게 되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 협상유형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결정변수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협상유형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더불어 협상과정에 있어 제약과 동기의 역할 규명이 필요하다. 앞서 문헌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상과정과 동기에 대한 일련의 연구결과는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협상과정을 갖기 때문에 제약이 반드시 비참여로 이어지지 않고 동기와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조정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하지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제약연구와 관련한 동기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몇의 해결해야할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동기와 여가활동 참여와의 관계성의 규명이다. 협상과정과 동기에 대한 일련의 연구결과는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협상과정을 갖기 때문에 제약이 반드시 비참여로 이어지지 않고 동기와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조정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하지만 실증연구결과를 보면, 동기와 참여간의 관계는 연구자마다 구체적인 정의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Alexandris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서(2002, 1997)동기가 여가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Hubbard & Mannell(2001)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기척도의 검증과 더불어 이들과 참여와의 관계에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검증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동기와 제약과의 관련성의 규명이다. 앞서 선행연구의 고찰에서 보았듯이 동기와 제약과의 인과관계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희·이철원(2003)의 경우 동기를 제약의 선행변수로 보는 반면, Alexandris *et al.* (2002)은 제약을 선행변수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이론적인 접근보다

관념적인 접근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들 변수의 선·후행 관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여가제약의 유형과 동기의 유형이 동시에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냈다. 두 번째 문제와 연관하여 고려하여 볼 때 제약과 동기의 하위구조를 고려하면 보다 변수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즉, 제약을 내재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으로 나누고 동기를 내재적 외재적동기로 나누어 이들 하위구조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다면 여가제약유형과 동기유형 사이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기를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행동을 일으키고(energy), 방향을 잡아 주고(direction), 유지하는 힘의 총합(Lindsley, 1957)으로 정의할 때 그동안의 연구는 행동을 일으키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면, 향후 연구는 개인의 동기를 “지속적”이게 하는 주변여건에 대한 변수를 개발하여 조절변수로 투입함으로써 개인의 차이를 고려한 모형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연구결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볼 때 향후연구에서는 여가제약의 협상과정과 협상과정에서의 동기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앞서 언급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약과 동기 그리고 협상과정을 통합적인 모형 속에서 연구함으로써 이들의 상대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가집단을 참여집단과 비참여 집단으로 세분화하고 세분집단간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도 여가제약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것이다.

3. 여가의 제약과 촉진 그리고 이들의 통합

여가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는 여가활동의 이해를 위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가연구 초기의 편익 및 만족에서부터 최근의 제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수들이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변수의 끊임없는 개발은 어쩌면 앞서 개발된 변수들이 근본적으로 여가활동의 모든 측면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의 반증이고, 아울러 이러한 한계의 극복을 위한 노력의 증거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가제약모형의 최초 개발자들이 언급하였듯이 비록 제약모형이 여가활동의 모든 점을 설명하려고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는 조정을 통해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가제약의 위계성의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여가제약의 위계성에 대한 문제점은 연구모형이 제안된 시점에 저자들이 위계

모형이 가지는 근본적 한계를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두 번의 실증연구의 상반된 결과는 여가제약의 위계성의 검토와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어쩌면 Henderson & Bialeschki(1993)가 주장하듯이 여가제약은 순차적이고 위계적 이기보다 역동적(dynamic)이고 통합적(integrated)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여가제약모형의 위계성의 옳고 그름을 떠나 Hawkins *et al.* (1999)이 희망하였 듯이 다양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여가의 제약모형이 될 수 있도록 제약모형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Jackson & Scott(1999)은 현행 여가제약연구를 비판하며, 여가제약연구는 당 시대의 사회과학 유형의 산물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지금까지의 여가제약의 연구는 어쩌면 심리학에 기초한 사회심리학의 관점에서 국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Ramore(2002)가 Gibson(1986)의 생태적 접근(ecological)을 이용하여 위계적 모형을 수정하려고 시도한 점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관점에서 여가제약에 대한 접근은 여가제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줄 수 있을 것이다.

4. 제약의 모형의 확대: 개인에서 가족으로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가장 중요한 여가 집단 중 하나이고, 여가활동과 관련된 많은 의사결정이 가족단위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Jackson & Scott(1999)이 주장한 바와 같이 80년대 이후의 여가 연구는 Blumer(1969)가 언급한 변수중심의 분석(즉, 중심적 논제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변수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변수들의 관계를 밝힘)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중심의 여가행동에 대한 이해가 증진된 반면 집단단위의 여가제약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개인의 여가활동에 따른 제약요인과 달리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에 있어 제약요인은 한층 복잡하다. 일반적 상품의 구매행위와 마찬가지로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은 구매자(실질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와 구매결정자(여가활동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 및 사용자(여가활동의 궁극적 목적 또는 편익의 중심에 있는 사람)가 각각 다르다. 즉 가족단위의 여가를 수행함에 있어 각 구성원이 가지는 제약요인이 다르고 이러한 제약요인이 구성원의 영향력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며, 이러한 제반의 제약요인들이 극복될 때 비로소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이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제약과 더불어 개인의 제약이 구성원의 제약요인과 벌이는 협상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실제적으로 Crawford & Godbey(1991)가 제안한 위계적 제약모형은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실증연구에 있어서는 변수중심의 분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가족단위의 여가보다는 개인단위의 여가에 많이 적용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과거 Scott(1991)가 수행한 집단중심의 제약에 대한 연구는 가족단위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하여 준다.

또한 많은 연구들은 개인의 여가형태 및 제약은 생애주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즉, 개인 또는 나아가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에 있어 제약의 형태 및 중요성은 생애주기를 따라 변해간다는 것이다. McGuire *et al.* (1986)은 옥외여가활동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제약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시간의 부족은 생애주기가 진행해 감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29-36 또는 37-43에서 정점을 보이다가 그 후로부터 점차 감소해 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파트너 부재의 경우 생애주기 초기에 크게 나타나다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의 문제는 시간의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개인의 제약요인의 상대적 크기는 생애주기 속에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것과 아울러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시간제약의 중요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제약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제약요인의 교환(constraint exchange)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준다.

여가제약의 실질적 이해를 위해서는 기존 개인중심의 연구와 더불어 이들이 속해있는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의 분석이 필요하다. 즉 제약완화에 따른 여가활동변화는 가족 구성원의 제약 및 이들이 가족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구체화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연구는 가족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제약요인들이 형성되고 협상되는 과정과 이에 따른 여가활동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제약연구 모형의 적용을 개인적 단위를 넘어 가족단위로 설정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80년대 이후 여가제약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연구의 방향을 설정해 보았다. 그 동안의 연구들은 제약의 유형화 및 위계화, 위계적 제약모형에서 제약 및 제약의 극복, 마지막으로 가

족단위에서의 여가 제약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학문적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도입하여 사용되어온 제약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여가제약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의의를 가진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각각의 제약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여가의 제약 및 완화에 대응하는 패턴을 밝힘으로써 향후 정책입안자들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 된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연구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여가제약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즉, 심리학적 관점의 사회심리학에 바탕을 둔 연구자의 시각적 한계로 인하여, 연구를 분석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다양한 관점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가 다른 시각(예, 사회학적 관점)에서 동일한 연구를 분석한다면 다른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아울러 세분집단의 여가제약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다. 특히 여성의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석에서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제약연구와 여성의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의 구분의 모호성 및 여성의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의 방대함에서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 내용연구와 달리 이 연구는 정성적인 방법에서 접근하였으나 정성적 연구가 가지는 연구의 주관성 및 일반화의 제약 등은 이 문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유일·강석희(2000). 여가활동참여에 있어서 제약유형의 위계적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8(1), 29-36.
- 김성희·이철원(2003). 도시근로자의 여가동기에 따른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3), 391-400.
- 이훈·송영민(2004). 여가촉진요인과 여가참여와의 관계분석. 『제 55차 한국관광학회 학술논문 발표대회 논문집』.
- 이훈·정철·정란수·이승구·정우철(2004). 여가활동과 제약요인 구조모형 : PPA와 여가제약이론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16(2), 29-48.
- 정란수·이훈·이인재(2005). 여가제약모형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 :사회구조와 행위의

변증법적 접근. 『제57차 한국관광학회 학술논문 발표대회 논문집』.

- Alexandris, K., & Carroll, B. (1997). An analysis of leisure constraints based on different recreational sport participation levels: Results from a study in Greece. *Leisure Studies*, 19, 1-15.
- Alexandris, K., Tsorbatzoudis, C., & Grouios, G.(2002). Perceived constraints on recreational sport participation: Investigating their relationship with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amotiv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3), 233-252.
- Blumer, H.(1969).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and Metho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Carroll, B., & Alexandris, K.(1997). Perception of constraints and strength of motivation: Their relation to recreational sport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 279-299.
- Crawford, D. W., & Godbey, G.(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9, 119-127.
- Crawford, D. W., Jackson, E. L., & Godbey, G.(1991). 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 309-320.
- Gibson, J. J.(1986).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Hillsdale, NJ: Earlbaum.
- Goodale, T. L., & Witt, P. A.(1989). Recreation non-participation and barriers to leisure. In E. L. Jackson, & T. L. Burton (Eds.), *Understanding leisure and recreation: Mapping the past, charting the future* (421-449).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 Harper, W.(1981). The experience of leisure. *Leisure Sciences*, 4(2), 113-126.
- Hawkins, B. A., Peng, J., Hsieh, & Eklund, S., J.(1999). Leisure constraint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construct development. *Leisure Sciences*, 21, 179-192.
- Henderson, K. A., Bedini, L. A., Hecht, L., & Shuler, R.(1993). The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by women with disabilities. Paper presented at the seventh Canadian Congress on Leisure Research, University of Manitoba, Winnipeg, Manitoba.
- Henderson, K. A., & Bialeschki, M. D.(1993). Exploring an expanded model of women's leisure constraints. *Journal of Applied Recreation Research*, 18, 229-252.

- Henderson K. A., Stalnaker, D., & Taylor, G.(1987). Personal traits and leisure barriers among women. Paper presented at the fifth canadian congress on leisure research, Dalhousie University, Nova Scotia, May 1987.
- Hubbard, J., & Mannell, R. C.(2001). Testing competing models of th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process in a corporate employee recreation setting. *Leisure Sciences* , 21, 145-163.
- Jackson, E. L.(1988). Leisure constraints: A survey of past research. *Leisure Sciences* , 6, 47-60.
- _____ (1990). Variations in the desire to begin a leisure activity: Evidence of antecedent constrai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 22, 55-70.
- Jackson, E. L., Crawford, D. W., & Godbey, G.(1993).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 15, 1-11.
- Jackson, E. L., & Scott, D.(1999). Constraints to leisure. IN E.L. Jackson, & T.L. Burton(Eds). *Leisure Studies: Prospects for the Twenty-First Century*(299-321).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 Jackson, E. L., & Rucks, V. C.(1995).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by junior-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 27, 85-105.
- Jackson, E. L. & Searle, M. S.(1985). Recreation nonparticipation and barriers to participation: concepts and models. *Loisir et Societe* , 8, 693-707.
- Kay, T., & Jackson(1991). Leisure despite constraint: The impact of leisure constraints on leisure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 23(4), 301-313.
- Lindsley, G.(Ed)(1957). *Assesment of Human Motive*. New York: Rinehart.
- McGuire, F. A., Dottavio, D., & O'Learly, J. T.(1986). Constraints to participation in outdoor recreation across the life span: A nationwide study of limitors and prohibitors. *The Gerontologist* , 26, 538-544.
- Raymore, L. A.(2002). Facilitators to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 34(1), 37-51.
- Raymore, K., Godbey, G., Crawford, D., & von Eye, A.(1993). Nature and process of leisure constraints: An empirical test. *Leisure Sciences* , 15, 99-113.

- Samdahl, D. M., & Jekubovich, N.(1993). Constraints and constraint negotiation in common daily living. Paper presented at the seventh Canadian Congress on Leisure Research, University of Manitoba, Winnipeg, Manitoba.
- Scott, D.(1991). The problematic nature of participation in contract bridge: A qualitative study of group-related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 321-336.
- Shaw, S. M., Bonen, A., & McCabe, J. F.(1991). Do more constraints mean less leisure?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raint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 8-22.

2006년 5월 30일 접수
2006년 8월 1일 최종 수정본 접수
3인 익명 심사 畢

K C I